

# 분리수거는 귀찮지만 너를 위해서라면

학급운영비 봉투가 사라졌다.

1학년 7반 학생들의 4개월 동안의 지각비, 체육대회에서 탄 상금, 선생님 생신을 위해 반 전체가 모은 육십육만 오백 원이었다. 돈을 총무가 방학을 2주 앞둔 기념으로 시간을 쪼개 은행에 가 뺏뺏한 오만 원권 지폐 열세 장과 만 원권 한 장으로 바꾸고 오백 원은 수고비로 꿀꺽한 일이, 바로 어제였다.

봉투는 1학년 7반의 총무, 최하나의 과학 교과서 평가 문제집 사이에 끼워져 있었고, 과학 교과서 평가 문제집은 최하나의 교실 사물함에 들어있었다. 최하나의 사물함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자물쇠의 열쇠는 최하나 책상 서랍에 있었고 불행히도 책상 서랍에는 열쇠를 지킬 잠금장치라 할만한 것이 딱히 없었다.

최 하나는 7월 6일 금요일, 8시 11분 경 등교 후, 약 12분 간 다른 반 친구들과 학교 곳곳을 돌아다니며 마실을 다니다 교실에 8시 24분 경

도착했다. 교실에서 활짝 열린 자신의 사물함을 보자마자 최하나는 자신이 육십육만원의 돈을 사물함에 넣어 놓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켰고 곧 패닉에 빠졌다. 괜히 오백원을 수고비로 빼돌려 떡볶이 말이 사먹을 돈에 보탤나. 매점에서 떡볶이 말기도 못 사먹을 돈을 좀 쫓겼다고 세상이 이럴 수가 있나.

최하나가 할 수 있는 온갖 비관적인 생각은 다 하며 손톱을 물어 뜯는 동안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주변 친구 한 명이 이유를 물었다. 최하나는 자신이 돈을 맡고있다 잃어버린 사태를 숨길 감냥은 되지 못했다. 최하나는 사실을 당장 덮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현재 상황을 모두 털어 놓았다. 학급 운영비를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하기는 이상해서 학급 운영비를 도둑 맞은 것 같다고 사건을 설명했다. 그게 사실이기는 했다.

사건을 모든 반 학생들이 알게 되는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반장 서우현은 사건을 심각하고도 크다고 판단하고 1학년 7반의 담임 선생님의 시간인 윤리 시간에 담임 선생님, 안기훈 선생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학급 회의를 열었다.

학급 운영비는 66만원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었다. 지상고등학교 1학년 7반 삼십 명이 회식을 거하게 하고 방학 중 있을 담임 선생님 생신을 위한 선물도 살 수 있을 돈이었지만 지각을 한번도 하지 않은 학생들은 66만원의 돈 중 ‘내 돈 지분율’은 선생님 생신과 언젠가 할 회식을 명목으로 반 전체가 걷은 일만 원 뿐이었다. 호수 또한 지각은 일절 해본 적 없었다.

지각을 밥먹듯이 한 학생들은 회식을 못하게 된 데에 아쉬운 마음이 적지 않았으나, 미안함에 고개를 낙서가 가득한 나무 책상에 파묻고 못 드는 반의 인사이드, 최하나를 위해 그냥저냥 잊어버릴만 했다. 모두가 ‘좋은 분위기를 자랑하는 1학년 7반’의 자부심과 동정심 이정도는

쿨하게 넘기는 나 자신에 대한 뿌듯함을 가지고 학급회의는 순탄하게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괜시리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등 도둑이 있는 사람 문제라는 등 괜찮다는 뉘앙스의 행동을 과장스레 표현했다.

그런데 도둑은 육십육만원 갖다가 뭐했을까. 대담하게도 66만원의 거액을 학교라는 신성한 장소에서 훔친 도둑을 잡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니 뭐 봤았다 치고 덮자, 그래도 회식이 증발되는 건 너무 아쉬우니 방학식날 떡볶이는 시켜 먹자, 선생님 생신 선물은 안타깝지만 못 드리겠다, 선생님 생신은 어차피 방학 중이니 괜찮을 거다, 라는 저마다의 말들이 교실을 뒤덮었다.

애초에 안 선생님이 여학생 남학생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인기가 좋은, 수업도 허허실실, 훈훈한 남선생님이었던지라 학생들이 돈도 걷은 거지, 학생들에게 기피대상인 다른 선생님이었더라면 국물도 없었을 터였다고 학생들은 생각했다.

청춘 드라마와도 같은 화기애애한 광경을 호수는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반 학생들 대부분이 저마다 신나서 몇 마디씩 거들 때도 호수는 입을 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평소 학급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오히려 반장보다도 다수의 학생들이 따르는 호수가 잠잠하자 호수의 옆자리에 앉은 몇몇 친구들은 웬일인가 싶었다. 그러나 호수를 의심하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

호수가 입을 꼭 다문 이유는 교실 구석, 자기들끼리 학급 운영비 도둑을 추측하고 비웃는 무리가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보이긴 했다만은 문 가까이 뒷자리 무리에서 피어나는 어쩔 수 없는 술렁거림과 웃음은 막기 어려웠다.

라운은 학급 회의 시간 내내 어색한 웃음을 띄었다. 자기 자신에게는 떳떳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지는 몰랐기 때문이다. 아니,

제 옆자리 친구만 하더라도 은근히 자신을 의식하며 멧쩍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억지스러운 추측이라 할지 몰라도 1학년 7반에 공공연하게 알려진 돈이 궁한 사람은 자신 밖에 없었다. 사정이 어려워진 사실을 굳이 숨기지도 않았고 편의점 알바를 비롯한 여러 알바로 피곤한 모습을 여러 차례 노출해왔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가난한 아이는 라운 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라운은 사실 다른 아이들이 돈을 흠뻑했다고 생각할 만한 이미지가 아니었다. 오히려 반에서 호수 다음으로 선망의 대상에 가까웠다.

밤늦게까지의 아르바이트로 피곤에 절어 있는 모습도 부족해 보이지 않아서일까. 태초에 구김 없는 본성 때문일까. 학기 초만 하더라도 라운은 차가워 보이는 인상의 호수보다 많은 아이들이 친해지고 싶어 하는 대상이었다. 라운 자신도 이를 밀어낼 생각은 없었다마는 친구와의 교제에 할애할 시간은 없었다.

그러나 라운은 학급 운영비 따위를 흠뻑 만한 학생이 아니더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어도, 참외 밭에서 신발끈 묶은 양 기분이 째째했다. 반 학생들도 의식하고 있었고 호수도 마찬가지였다. 호수는 심기가 불편한 자신을 보고 조금 놀랐다. 과연 라운과 두 달 전 인연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라운의 마음을 걱정했을까 생각해보았고,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에 혼자 민망했다.

꼭 그런 사람이 있다. 주변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지만 잘난 사람. 그렇다고 자신이 잘났다는 사실을 즐기지도, 자랑하지도 않는다. 때문에 생긴 저를 시기하는 사람들도 크게 신경 쓰는 편이 아닌, 그런 사람이 있다.

호수가 그랬다. 모두의 선망 어린 시선을 받으면서도 그 시선을 부담스러워 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았다. 한 마디로 무관심에 가까운.

전반적으로 모두에게 적정선 이상의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사회와 단절된 사람 마냥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있는 사람과는 더더욱 거리가 멀었다. 호수는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호수의 첫인상과는 다르게, 필요하다면 영어 토론 대회나 학급 회장 선거와 같은 대외적인 활동에도 거리낌이 없었다. 그런 것들이 설령 필요 이상의 관심을 불러온대도 그랬다. 자신이 좋고, 남에게 피해가 없으면 좋은 거였다. 자신이 잘나서 친구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지만, 죽고 못사는 친구도 없었다.

그런 호수에게 라운과 가까워지게 된 계기는 꽤 특별했다.

\*

“고등학생 때 교회 처음 나오기로 마음 먹기 쉽지 않은데.”

“완전 처음은 아니고 초등학교 때 몇 번 가 보긴 했었어요.”

“그래, 아무튼 잘 생각했어. 앞으로 교회 잘 나오고 하나님 만나야지, 학생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학생부는 재밌을 거야, 친구들도 있고, 그래 아무튼.”

정 집사가 라운에게 살가운 표정으로 말을 걸고 있었다. 격려하듯 보이는 상황은 남학생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긴 했지만, 남학생이 불쾌해 보이지는 않았다. 호수는 한눈에 순한 눈매의 남학생이 같은 반 학생인 것을 알아 보았다. 하지만 먼 거리에서, 그것도 교복 차림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그 아이를 본 적은 처음이라 남자애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 노력할수록 점점 더 긴가민가해졌다. 남학생과 제대로 이야기 해 본 적이 없기도 했다.

“어, 호수야. 마침 잘왔다. 고등부에 오랜만에 새 학생이 들어왔어, 네가 잘 챙겨줘라.”

호수가 실없는 생각에 잠긴 사이, 어느새 정 집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안중앙침례교회 고등부 전도사가 어디를 가는지 모를 길을 바빠 가며, 호수에게 식상하지만 갑작스런 부탁을 했다. 남학생은 호수를 바로 알아본 듯 당황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금세 평소와 같은 얼굴을 했다. 순간 호수는 자신이 이 아이의 평소 얼굴을 어떻게 기억하지 싶었지만 딱히 신기한 일은 아니었던지라 뭐라고 말을 건네야 할지를 생각했다. 라운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불편하기만 한 듯 쭈뼛거렸다. 호수가 생각해봐도 고등학생이 되어서 처음 제대로 다녀보고자 방문한 교회에서 말도 섞어보지 않은 ‘어색한 사이’의 같은 반 친구를 마주하자면 마냥 반갑지는 않았을 것이다. 호수는 라운의 현재 심정을 깊이 헤아릴 마음은 없었으므로 형식적이고 어색한 인사치레를 줬다.

“안녕.”

“어, 안녕.”

“교회는 어떻게 오게 된거야?”

“어?... 이야기 하자면 긴데, 나중에 말해줄게.”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본 거 아닌데. 나중에 답한다는 대답을 기대한 건 아니라 호수는 웃음이 조금 나올 뻔 했다.

“아, 난 김라운이야.”

“알아.”

“어, 정말? 아는구나...”

호수의 웃음 아닌 웃음을 알아채지는 못했는지 라운은 별안간 자기 이름을 소개했다. 호수는 전도사님도 한 번 언급한 자신의 이름을 굳이 다시 한 번 알려주지는 않았다. 그저 어색하지만 불편한 정도까지는 아닌 분위기 속에 둘은 서 있었다. 호수는 라운을 학생부 예배실로 안내했다.

학생 예배가 시작하는 건 12시 50분. 12시 45분까지 자리에 앉아 주세요. 라는 글씨가 벽면에 인테리어용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으나 실제로 시작하는 시각은 보통 1시 즈음이었다. 라운의 손목에 전자 시계가 12:51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도 좀처럼 모이지 않는 사람들 때문인지 라운은 표정과 손짓으로 호수에게 의문을 표했다. 언제쯤 예배가 시작하냐고. 호수는 어깨만 으쓱했다. 예배 시작을 준비하는 찬양팀 몇 명과 맨 뒤에 불량한 자세로 핸드폰을 하고 있는 남학생 두 명을 제외하고 다른 학생들은 없었다. 살짝 둥글게 배치되어 있는 접이식 의자들 가운데 호수는 앞에서 두 번째, 가운데의 의자에 앉았다. 라운도 호수의 바로 옆자리에 앉았다.

“혹시 지금 몇 시야?”

“12시 57분.”

느리게 흐르는 6분을 견디고 호수는 라운에게 시간을 물었다. 라운의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찬양팀 인도자가 예배 시작을 알렸다. 어느새 6분 전보다 세 명의 학생이 더 앉아 있었다. 찬양 도중 호수는 옆의 라운을 힐끔힐끔 살폈다. 충분히 어색해 보였지만 그래도 라운 나름대로 열심히 ccm을 따라 불렀다. 호수는 안심인지 어색함인지 모를 감정을 뒤로 하고 찬양에 집중했다.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은 좋았다. 호수는 라운에게도 말씀이 그렇게 느껴졌는지 궁금했다. 학생부 예배가 끝나고 라운은 평소의 표정보다 좋아보였다. 원래대로라면 걸어서 교회와 멀지 않은 집을 갔을 테지만 호수는 라운에게 교회 카페를 안내해준다고 했다. 교회 카페에 고등학생이 즐길 음료는 없었지만서도.

1층에 있는 카페는 사실 카페라기 보다는 교회 성도들의 대화를 위한 공간이었다. 카페라는 이름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믹스커피, 동굴레차, 현미녹차 티백들이 테이블에 놓여져 있었다. 호수는 자판기에서 울무차 두 잔을 뽑았다. 자판기 버튼을 누른 순간 봄이 다가오는 날씨에 뜨거운 울무차는 좀 오반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별 수 없었다.

“학교 생활은 어때?”

호수는 라운에게 오늘 교회에서의 예배 대신 학교 생활에 대해 질문했다. 내가 너를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질문이었다. 라운은 호수의 질문 속 유치함 때문인지 미소를 지었다. 대답은 하지 않았다. 라운은 울무차를 한 모금 마셨다. 줄어든 양은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분간하기가 힘들 정도였다.

라운은 또 호수에게 뜻하지 않게 많은 내용의 이야기를 털어 놓았다. 호수는 쏟아내듯 하는 이야기는 기대하지 않긴 했었지만 라운의 이야기를 무엇이랴도 듣고 싶었다. 그래서 라운의 이야기를 꽤 열심히 들었다.

라운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다. 편의점 말고도 두 가지 다른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였지만 호수에게는 생소한 아르바이트였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를 따라 간식 주는 교회에 몇



번 가본 적은 있지만 꾸준히 나가지는 않았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교회에 대한 동경과 거기서 느낀 따뜻한 감정은 경험해 보았다고. 형의 이름은 김지운이고, 형 때문에 지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실도 말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라운의 모습은 썩 새로웠다. 호수는 자신이 거의 초면과 다름 없는 상황에서 이런 내용을 털어 놓을 만큼 신뢰가 되고, 편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자신이 생각해도 그건 아니었다.

‘신기한 성격이네.’

실컷 말을 마치고 난 후의 라운은 그래도 홀가분해 보였다. 어쩐지 호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다.

처음 라운이 교회를 나온 날 뒤로도 라운은 의외로 교회에 열심히 나왔다. 세 번째 주부터는 대예배도 드리기 시작했다. 호수와 라운은 꾸준히 학생 예배가 끝나고 교회 카페에 들러 울무차를 마셨다. 울무차를 마시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진지한 이야기, 영양가 없는 이야기, 학교 이야기, 가족 이야기, 신앙 이야기, 내가 잘 모르는 편의점 이야기. 날은 점점 더워졌지만 식은 울무차는 꽤 마실만 했다. 이렇게 호수와 라운은 가까워졌다. 확실히 다른 친구들과는 조금 다르게 서로가 편해지는 과정을 겪었다. 호수는 바쁜 아르바이트 일정으로 시간이 없는 라운과 시험 공부를 같이 하기도 했다. 라운이 모르는 개념과 문제들은 과외에서 배운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한 수준으로 공들여 알려 주었다.

그렇다고 둘이 학교에서도 편히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라운은 지각을 간신히 면할 정도로 학교에 와서 등교하고도 아침활동시간에는 수면을 취했다. 수업시간에 딱히 안 조는 건 아니었다. 라운도 필사적인

노력은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하교 또한 누구보다 빠르게 했다. 모든 것이 아르바이트 때문이었다.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도. 사실 라운 때문에 학교에서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호수의 핑계였다. 학교에서는 교회 1층 카페와 같이 대화하기 힘들었다. 호수는 남의 눈치를 보는 성격은 아니었는데, 유치하지만 비밀 친구 같다고 느껴졌다. 이는 라운드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느꼈다.

\*

그래서 호수는 불편했다. 지금 상황이. 아무도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지만 자신이 아는 라운은 마음 속으로 혼자 불편해 할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교실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밖에 없었다.

순탄히도 진행되던 학급 회의 도중 호수는 자리를 박차고 교실에서 나갔다. 호수가 없는 남은 교실에서 미안한 표정을 짓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라운 뿐이었다.

호수는 없어진 학급운영비 봉투 조각이 지금 누구의 수중에 있을지 짐작이 갔다. 호수는 몇몇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떠올리며 이번 주 주일, 라운에게 꺼낼 말을 생각했다.

\*

“범인을 잡자.”

“무슨...”

평소와 같이 교회 1층 카페에서였다. 호수는 라운의 범인은 무슨 범인이라는 뉘앙스의 얼버무리며 끝맺은 말을 무시했다. 라운도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운은 호수의 말의 뜻을 애써 외면하는 듯 보였다. 그럼에도 호수는 확고했다.

“학급 운영비를 훔친 사람을 알 것도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범인을 봤어?”

“아니 그건 아니지만, 아니면 너야? 아니잖아.”

“당연히 아니지...”

“그래 넌 아니지, 그럼 누구일 것 같은데.”

“.....”

“범인을 잡자, 그냥 갑자기 범인을 잡고 싶어졌어. 죄를 지었는데 대가를 안 치르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 그리고 너랑 같이 찾고 싶어.”

“그래... 나도, 나도 범인을 찾고 싶어.”

호수와 라운은 같이 학급 운영비를 가져간 사람을 찾았다. 월요일, 둘은 7시 39분에 동시에 등교했다. 정문에서부터 눈이 마주친 둘은 속으로 작게 웃으며 말없이 교실로 향했다. 교실에서도 각 자리에 떨어져 잠시 책가방을 내려 놓고, 주변 자리를 정리할 틈도 없이 계획을 시작했다. 호수가 라운의 자리 쪽으로 옮겨서였다.

“최하나는 아닐 거야.”

호수는 담담하고 확신에 차 말했다.

“하나와 이야기 해봤어?”

“아니, 최하나가 금요일에 학교에 들어오자마자 사물함 보고 얼빠진 표정 봤어.”

“아, 난 금요일에 늦게 등교해서...”

“지난주 목요일에 가장 늦게 하교한 사람이 누구지. 금요일에는 내가 학교에 제일 먼저 왔었는데 아침 시간에 없어진 건 아닌 것 같아. 누가 돈 훔치려고 걱정하고 새벽에 학교 왔다가 다시 집 간게 아니라면.”

“아마 주변이지 않을까? 난 청소 끝나면 항상 일찍 하교해서 잘 모르겠어, 직접 물어봐야할 것 같아.”

사실 교실과 친하지 않고, 학교에서 이토록 길게 대화한 것은 입학한 이후 처음인 두 사람이 같이 고민해봤자 소설같이 실마리가 풀리는 일은 없었다. 둘은 알리바이가 필요한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하기로 했다. 목요일 주변이었던 김주호, 교실에 남아 있던 배은수, 박해아, 이영주, 이이슬, 목요일 마지막까지 교실에 있었던 서우현 그리고 총무 최하나.

먼저 호수는 목요일 주변 김주호에게 돌려 말하는 법 없이, 내가 목요일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교를 하였냐고 물었다. 주호는 이를 묻는 저의가 무엇인지, 불쾌한 마음이 들었지만 호수는 불쾌하지 않도록 대답에 임했다. 자신이 목요일에 주변이긴 했지만 배은수 무리가 학교가 끝나고 시내로 놀러 가기 전, 교실에서 화장을 한다고 자기들이 에어컨 끄고 문닫고 갈테니 먼저 가라 했다고. 그러니 아마 마지막까지 교실에 있었던 사람은 배은수 무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에게서 말을 듣고 호수는 배은수 무리에게로 향했다.

처음 호수가 책상 위에 흙 묻은 운동화를 올리고 잘 떠들고 있는 배은수에게 말을 걸었을 때, 배은수와 아이들은 의외의 인물에 놀랐다. 하지만 이내 탐탁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을 하고 호수의 질문에 대해 자기들끼리 또 떠들기 시작했다. 배은수는 상황이 웃긴지 킬킬대며 웃었다.

박해아가 말했다. 아, 맞다. 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간 거 아니잖아. 나 지갑 놓고 와서 영주랑 같이 교실 왔을 때 서우현 봤어. 선생님이랑 상담한다고 그러던데. 아 맞네. 아, 우리 목요일에 마지막으로 교실에 있던 사람 아님. 그리고 우리가 있었을 때 도중에 최하나가 들어와서 사물함에 뭐 놓고 갔었어. 그때 째 째도 잠깐 왔다 가셨고.

여기까지의 내용을 호수가 라운에게 전했을 때 짧은 점심시간이 끝났다. 호수는 점심시간이 끝나고도 라운의 옆자리에 앉아 대화를 계속했다. 호수는 항상 수업에 늦게 들어오는 수학 선생님이 처음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알리바이가 필요한 사람들 목록 중에…….

“일단 주호는 교실에 혼자 있었던 적이 없어, 현장 부재의 증명…”

“그럼 배은수네 무리는? 어떻게 생각해?”

“네 명이 짜고 치는게 아니라면 애네들이 범인일 가능성은 희박한 것 같아. 주호와 달리 하나가 사물함에 봉투를 놓는 걸 봤겠지만 그게 학급운영비 봉투인 줄은 몰랐을 거고, 만약 가능성이 있다면 지갑을 놓고 왔다고 했던 해아… 하지만 영주랑 같이 교실을 왔다고 했어. 몰래 훔치려고 했으면 혼자 간다고 하지 않았을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나는 학급 운영비를 빼돌리려고 했다면 차라리 잃어버렸다고 하거나 굳이 은행에서 찾은 돈을 다시 학교까지 와서 두고 가지는 않았을 거야. 돈을 잃어버린 걸 알고 패닉에 빠진 것 같기도 했고… 그게 연기가 아니라면…”

“범인은 아니지.”

“수업 마치면 우현이한테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뭐 본 사람 없냐고 물어보자.”

\*

웬일로 남아있는 학생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하교를 한 조용한 교실이었지만 시끌벅적하게 요란하던 교실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었다. 호수는 수학시간에 떠들었던 대로 서우현에게 말을 걸었다.

“우현아,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어딘가 냉정하고 날카로워 보이는 호수의 표정에 라운은 조금 놀랐다.

“왜? 무슨일인데?”

“학급 운영비 없어진 것 때문에. 배은수네 무리가 네가 목요일에 마지막으로 교실에 있었던 사람이라는데, 맞아?”

마치 범인을 대하는 듯한 호수의 말투에 어이가 없다는 우현의 반응을 예상한 라운과 달리 우현은 말이 없어졌다. 우현은 잠시 숨을 골랐다.

“맞긴 맞는데… 혹시 날 의심하는 거야? 난 선생님과 같이 있었어.”

“알아. 그런데 계속 선생님과 같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 네가 먼저 교실에서 혼자 있다가 선생님께서 들어오신 거 아니야?”

“…….”

“선생님과 무슨 얘기 했어? 상담기간은 벌써 다 지났는데.”

“…그냥 개인적인 얘기였어.”

우현의 말에 호수는 우현을 꿰뚫는 것처럼 잠시 응시했다.

“나 의심하지 마.”

“그러면 왜 이렇게 떠는 거야? 솔직하게 말해도 돼… 양심에 찢리는 일은 오히려 털어놓았을 때 더 행복할지도 몰라.”

호수의 말은 마치 라운의 말투처럼 들렸다.

“.....”

라운은 동공이 정처 없이 흔들리는 우현이 놀랍게도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이 지금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우현의 마음을 여과 없이 나타내고 있었다.

“우현아.”

놀랍도록 다정한 호수의 목소리에 라운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뜨거운 정적이 이어졌다. 우현은 열려 있는 사물함을 본 금요일의 최하나보다도 패닉에 빠진 눈을 가지고 있었다. 호수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할 것 같은 우현의 눈을 응시했다. 우현도 눈을 피하고 싶지는 않았는지 호수의 얼굴을 쳐다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자기가 원치 않아도 내려가려 하는 눈동자는 어쩔 수 없었다. 둘이 서로를 바라보는지, 노려보는지 모를 순간이 지속되자 라운은 둘을 번갈아 쳐다 보았다. 그리고 우현에게서 웃음이 새어나왔다. 우현을 예의주시하지 않았더라면 모를 아주 작은 웃음이었다. 라운은 방금 저 웃음을 호수도 느꼈는지 물어보는 의미로 손으로 호수의 어깨를 살짝 쳤다. 호수는 라운에게 긍정의 눈짓을 한번 하고 말했다.

“내가 네 수행평가 점수에 문제 있는거, 모를 줄 알았어?”

갑자기 이어지는 영문을 모를 소리에 라운은 우현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우현은 눈에 띄게 굳어있었다.

“시험지 걷을 때 누가 네 거 볼까봐 불안해 하는 모습도, 아니 수행평가 보기 전 공부하는 모습만 봐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겠어.”

“.....”

우현은 고개를 떨구고 말이 없었다. 생각이 잠긴 듯 했다. 라운은 아까 자신이 들은 것이 웃음이 아니라 흐느낌이었나, 하고 생각했다.

곧 우현은 자신의 것을 실토했다. 네 말이 맞다고, 목요일에도 시험 내용을 들으려고 학교에 남았던 것이라고. 라운은 대답을 이끌어낸 호수의 위압감인지 뭔지 모를 무엇인가에 작게 감탄했다.

하지만 우현은 자신이 돈을 훔친 범인은 아니라고 했다. 상담을 가장한 시험 문제 유출 이후, 누가 볼까봐 혼자 무서워 빨리 하교를 했다고 말했다. 라운은 무표정의 호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생각했다. 호수는 알겠다고, 네 말을 믿는다고 말했다. 우현은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나갔다. 교실에 남은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간 정적이 흘렀다.

‘그렇다면 교실에 마지막까지 있던 사람은...’

“범인은 선생님이야, 선생님. 처음부터 범인을 알 것도 같다고 했잖아.”

멍한 정적을 깨고 호수는 담담히 말했다.

\*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 수요일. 학교는 하루하루 평화롭게 지나갔다. 아니 평화로워 보이는 보통의 나날들이 연속되었다. 1학년 7반의 학생들은 언제 무슨일이 있었냐는 듯 학급 운영비 사건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생활했다. 기억에서 망각했다기보다는 도난 사건을 웃으며 다른 반 친구들에게 자랑하듯 풀어내는 학생들도 많았다. 오직 호수와 라운 그리고 우현만이 전과 다른 마음가짐으로 등교를 했다. 금요일이 될 때까지도.

금요일 하교 시간, 호수는 기대된다는 눈과 열은 미소로 라운에게 인사했다.



“잘 가, 주일날 교회에서 보자.”

라운도 웃으며 대답했다.

“어... 일요일에 보자.”

지금까지와 같은 주일이었다. 라운은 학생부 예배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교회 카페로 향하려고 했다. 그러나 호수의 입밖에서 나온 제안은 라운에게 너무나 뜻밖이었다.

“우리 집에 갈래?”

“어...어?”

“오늘은 우리집에서 이야기하자. 날씨도 이제 너무 덥고... 이제 더이상 그 웃긴 율무차 못먹겠잖아. 또 할 일도 있고.”

라운은 예상치 못한 호수의 말을 몇 초 간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 싶었다. 하지만 거절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서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

“17층이야.”

엘리베이터의 버튼 쪽에 가깝게 선 라운에게 호수가 말했다. 라운은 아직도 실감이 안난다는 사람처럼 주뻔거리며 버튼을 눌렀다.

“우리 집 바로 밑 층에는 삼촌이 살아, 작은 외삼촌.”

자신이 몰라도 될 것 같은 정보들을 알려주는 호수의 말을 들으며, 라운은 친구라면 이런 정보도 알아야 되는 걸까 하고 생각했다. 사실 라운은 초등학교 때 이후로, 친구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라 조금 긴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대한 그렇지 않아보이게 노력하며 호수의 집에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라운은 아무도 없는 듯한 집에 인사했다.

“쇼파에 앉아 있을래? 마실 거 줄게, 정말 시원한 거.”

호수의 말에 라운은 웃음을 터뜨리며 긍정의 대답을 했다.

“아, 그리고 밑에 층에도 갔다 와야 해, 엄마가 삼촌한테 수박 좀 가져다 주라고 했거든. 우리도 갔다 와서 수박 먹자.”

호수는 얼음을 띄운 식혜를 라운 앞에 놓고 냉장고 안에 한 입 크기로 잘라져 밀폐 용기에 들어있는 수박을 꺼냈다. 호수와 라운은 한 층 정도는 시간을 위해서라도, 지구를 위해서라도 더운 날씨에도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으로 갈 의향이 넘쳤다.

윗층 호수의 집과 다를 게 없는 현관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두 사람은 호수의 삼촌을 기다렸다. 처음 초인종을 누르고 10초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자 호수는 초인종을 연속해서 세 번 더 눌렀다. 그리고 나서 십 초 간 더 기다리니 굳게 닫혀 있었던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이 열리자 일어난지 얼마 안되어 보이는 부스스한 머리의 남자가 나왔다. 라운은 자기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두꺼운 빨테 안경에 세수조차 안한 것 같은 몰골의 사람은 기훈이었다. 호수의 삼촌이 1학년 7반의 담임 선생님 안기훈이었다니. 의외의 사실이었지만 라운은 태연한 척 했다. 그리고 멧쩍은 웃음을 지어보였다.

“삼촌, 엄마가 수박 가져다 주라고 해서.”

호수는 밀폐 용기를 내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삼십대 막둥이 동생에게 수박 하나를 통채로 줄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고이 한 입 크기로 썰어 주는 엄마와 그걸 당연히 받아먹는 외삼촌에 대한 묘한 감정을 느꼈다. 기훈은 한 손으로는 문을 열고 다른 한 손은 눈에 갖다 대고 호수의 말소리를 듣다가 호수 옆에 라운을 보자 화들짝 놀랐다. 그러나 기훈 또한 최대한 태연하게 굴었다.

“어, 호수 왔구나. 라운이도, 웬일로 호수가 친구를 데리고 왔네.  
더운데 뭐라도 마시고 갈래?”

라운은 기훈의 말에 감사하나 괜찮다고 웃으며 거절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호수는 자신이 라운을 위해 식혜에 얼음까지 넣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지 밝고 당차게 긍정의 대답을 했다. 라운이 본 호수의  
모습 중에 가장 환하고 인조적인 웃음이었다. 기훈도 호수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겠다는 의사를 표할 줄은 몰랐는지 잠시 당황한 기색이  
얼굴에 스쳤다. 애초에 자신이 한 제안 아닌 질문은 수박 심부름을 온  
조카에게 한 입바른 말이기도 했다. 그래도 군말 없이 두 사람을  
자신의 집에 들였다.

기훈의 집은 잘 정돈되어 있고, 깨끗했다. 기훈 자신이 청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깔끔했다. 신발장에 운동화 및 여러 종류의 신발들은 터질  
듯이 꽉 차 있고 몇 개 빠져나와 있어도 깔끔했다. 호수와 라운은  
쇼파에 앉아 기훈이 부엌에서 내는 텀그덕거리는 소음을 들었다.  
그리고 얼마 뒤, 기훈은 오렌지 주스가 담긴 유리잔 두 잔을 내왔다.  
얼음은 없었다. 호수는 속으로 이 오렌지 주스도 엄마가 사다 기훈의  
냉장고에 채워 넣은 주스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 무슨 일이니?”

기훈의 질문은 분명 무슨 일로 둘이 같이 있냐는 질문일 테지만 두  
사람에게는 마치 무슨 일로 자신의 집에 방문했냐는 것처럼 들렸다.

호수는 표정 없이 말했다. 선생님께서 저지른 일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라운은 표정을 지우려 노력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삼촌에  
대하여 생각을 하면 저절로 표정이 없어지는 것이었다. 라운은 뜬  
들이지 않고 곧바로 본론을 이야기한 호수에 놀랐다. 호수는 고요했다.  
그런 호수가 조금 신기했다. 무표정으로 떨지 않고 말하는 호수가 새삼  
신기했다.

기훈은 처음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웃었다. 자신의 하나뿐인 조카가 귀여운 말을 한다는 듯이. 하지만 호수의 말에 라운이 말을 덧붙이고 자신이 지금까지 저지른, 아무에게도 들키면 안되는 치부들이 조카와 제자의 입에서 들려오자 기훈의 얼굴은 급격하게 굳어져 갔다.

기훈은 감히 선생님께 그런 헛소리를 하면 쓰냐고 둘을 혼내려 들었다. 호수는 우현에게서 모든 일을 들었다고 했다. 선생님이 수행평가 점수를 조작하고, 시험 내용을 유출한 사실을 다 안다고 말했다.

“그리고, 습관성 도벽이 있는 것도 다 알아요, 삼촌.”

기훈은 거실의 쇼파 맞은 편 가죽의자에 무표정으로 앉아 사색했다. 하지만 별 소득은 없었다.

“호수야, 난 네 삼촌이잖니.”

기훈이 마지막으로 호수를 보며 한 말은 슬퍼보였지만 호수는 반응하지 않았다.

\*

라운은 생각했다. 아무리 호수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특별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학생의 신분으로 선생님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생각했다. 그러나 상황을 이상하게 돌아갔다. 이게 당연한 것이긴 했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세상은 역시 반전의 연속이었다.

“7반은 진짜 웃기네.”

“그러니까. 무슨 이런 타이밍에 선생님이 바뀌어.”

“기훈 쌤이 뭐 더 배우고 싶다고 했다던데, 몰라.”

라운은 복도에서 가끔씩 이러한 대화를 들을 때 마다 자기도 모르게 움츠러졌다. 물론 기분이 좋았다. 남들에게 떠벌리고 자랑할 수는 없어도 무엇인가를 해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좋았다.

호수는 가지지 않아도 될 죄책감을 느끼는 라운을 보며 언젠가는 꼭 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네가 아니었다면 삼촌의 일을 해결하지도, 해결할 수도 없었을 거라고. 네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 일을 하지도 않았다고. 또 고맙다고.

그러면 라운은 평소 표정을 지우고 웃어보일 터였다.